

국가예산 1조원 시대 눈앞

익산시, 내년도 국가예산 9708억원 확정... 역대 최대 규모

익산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하면서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지역 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해 왔던 주요 현안들이 대거 반영되면서 민선 8기 핵심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민생부터 경제, 복지 지역 균형발전까지 아우르며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시는 탄탄한 재정을 기반으로 시민의 삶과 행복이 중심이 되는, 가장 익산다운 도시로 변화해나갈 방침이다.

익산시는 27일 정현을 익산시장과 김수홍·한병도 국회의원, 최종오 시의회 의장과 함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현황 기자회견을 열고 분야별 성과를 발표했다.

시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액은 총 9천708억원으로 올해 9천688억원보다 640억원 증가했다. 지난 2020년 7천520억원과 비교했을 때 최근 3년간 무려 35.7%라는 기록적인 성장률을 보인 셈이다.

이로써 시는 국가예산 9천억원 시대를 연 지 불과 1년 만에 1조원 시대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더욱이 이번 성과는 올해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가 확장에서 긴축으로 전면 전환되고 예기치 못한 국외 상황 속에서 이뤄낸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이번 성과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정부 공모사업을 대거 확보했다는 점이다. 시가 올해에만 대거 공모사업은 36건으로 이는 전년 대비 10건 증가한 수치다.

각각 광주광역시를 제치고 최종 유치한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220억원), 교통안전도시로 입지를 강화한 △충청·전라권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270억원),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협약(880억원), 북부지역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도시재생 뉴딜사업(합영지역)(219억원) 등 대규모 공모사업에 잇달아 선정되며 공모 분야 전국 최강의 면모를 보여줬다.

시는 매년 늘어나는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초기 준비부터 응모까지 단계별 대응방법, 방침 등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왔다. 매주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부서별 질 높은 사업에 선별적으로 대응하고,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지역구·도내 국회의원 등 정치권을 통한 지원활동을 강화했다.

시는 지역의 미래성장·발전을 이끌 핵심 현안 예산도 대거 확보하며 민선 8기 대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경제·SOC분야에 △활성탄 섬유기술 지원 산업화 촉진사업(37억원, 총사업비 145억원), △친환경 농건살기계 기술지원 기반 구축 사업(20억원, 총사업비 114억원),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조기 착공(357억원, 총사업비 7,729억원) 등 2천405억원을 확보해 시민이 편안한 사회적 기반을

확충하고 미래산업의 메카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둘째, 문화·관광 분야로 △백제 금마지 전통문화 복합체험단지 조성(2억원, 총사업비 408억원), △익산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30억원, 총사업비 198억원),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확산사업(4억원, 총사업비 362억원) 등 351억원을 확보해 풍성한 관광자원과 특색있는 문화콘텐츠로 대한민국 역사문화관광 1번지로 도약할 예정이다.

셋째, 농축산·식품 분야에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59억원, 총사업비 300억원), △디지털 식품 클러스터 구축·운영 사업(30억원, 총사업비 285억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87억원, 총사업비 263억원) 등 2천201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농생명 바이오 산업 허브로 나아간다는 전략이다.

넷째, 안전·환경 분야는 △익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사업(76억원, 총사업비 880억원), △익산 공공하수 처리사업 정비사업(59억원, 총사업비 423억원), △장산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59억원, 총사업비 244억원) 등 886억원이 반영되어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 분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200.2억원, 총사업비 400억원),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17억원, 총사업비 220억원),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9.25억원, 총사업비 80억원) 등 3천786억원을 확보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건강한 보건의료 행복도시를 구현하게 되었다.

익산=이재춘기자



마을자치연금 전국 최초 익산시가 마을자치연금 2호 마을을 준공하며 노후 보장 체계로 농촌 공동체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자치연금시대'를 본격 개막한다.

“관·내외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익산시, 농촌 공동체 자치연금시대 '본격화'

마을자치연금 전국 최초 익산시가 마을자치연금 2호 마을을 준공하며 노후 보장 체계로 농촌 공동체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자치연금시대'를 본격 개막한다.

시는 27일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제2호 '합영 금성마을'의 준공식을 개최, 농촌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민간 공동 프로젝트의 확대를 알렸다.

이는 전국 3번째 마을자치연금으로 시는 전국 1호인 익산 성당포구마을에 이어 익산에서 2번째 마을을 탄생시키며 농촌 공동체 회복 기반을 성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현을 시장을 비롯해 국민연금공단 김성호일 경영지원실장 한승태, 박영철 ES사업부장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위원장 익산 농촌지역 마을 대표, 금성마을주민 등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금성마을은 제1호 마을인 성당포구

마을과 같이 마을공동체창조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을 조성하고 기존 마을공동체 수익금을 합산해 마을자치연금 재원을 마련한다. 내년부터 연금 지급 계획이며, 연금 지급 후 남은 금액은 시설 유지·보수에 활용한다.

한편 시는 지난 9월 마을자치연금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마련을 위해 조성된 마을자치연금 연수소를 통해 마을자치연금 노후우 전수 및 교육 그리고 컨설팅을 추진하여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대응과 사업 가능한 마을 발굴을 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농촌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완하는 마을자치연금의 혜택을 많은 분이 누릴 수 있도록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관·내외의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발을 돌리게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 愛 4일, 살아보고 놀아보고 알아봐요’

군산시, 문체부 2023 생활관광 공모 사업 선정 쾌거

오는 2023년, 군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 상품을 통해 가족 연인과 함께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는 2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3 생활관광 활성화 공모 사업에 군산시간여행마을의 여행상품이 선정돼 국비 3년간 3억원(연 1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생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은 방문지역에 일정기간(3일이상) 체류하면서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 지역다움을

체험, 지역민들의 삶을 공유하는 등 관광 여행 상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원도심 여행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백부더모던: 시간 속에 근대 역사를 여행하다를 주제로 지난달 공모에 도전했으며 지난 6일 치러진 현장 심사와 발표를 거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백부더모던: 시간 속에 근대 역사를 여행하다 는 군산인이 지난 역사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시간여행마을에 조성된 문화관광자원을 결합해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3일

이상의 관광 프로그램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타임인 군산(Time in Gusan)과 시네마 군산(Cinema Gusan)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됐다.

타임인 군산은 1950년대 말평야마을부터 일제강점기(1950~1980)의 시간을 여행하다를 주제로 지난달 공모에 도전했으며 지난 6일 치러진 현장 심사

와 발표를 거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시네마 군산은 22곳의 유명 영화촬영지와 영화의 거리를 거닐며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 보는 이색 체험으로 두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여행한다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관곤기자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군산시가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와 품목을 선정했다.

시는 27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군산사랑상품권을 비롯해 신동진 쌀, 활참살보리, 박대, 울외장어찌, 멸치, 젓갈세트, 군산행뽕대면, 잡곡세트, 친환경 양울포카로, 커피다저트 세트, 생선구이필킷 등 12개 품목으로 답례품 공급은 총 16개의 공급업체가 맡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답례품 공급업체와 품목을 선정하기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과 공고를 실시했으며, 최종 선정에 앞서 신청서류에 의한 정량 평가(70%)와 담당공무원의 현지실사, 제인업체 발표를 통한 정성 평가(30%)

실시 등 군산을 대표하는 답례품을 선정하고자 객관적인 지표를 발굴·평가해 이날 최종 답례품과 업체를 선정 완료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에 선정된 답례품은 대부분 군산을 대표하는 특산물”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군산인의 특색이 담긴 답례품을 지속 발굴해 많은 분이 우리 군산시에 기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 1일 본격 시행되는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는 군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군산시에 기부하면 이를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군산=김관곤기자

지역 소식통

2023년 군산사랑상품권 1월 2일 판매 개시

군산시는 내년 1월 2일 오전 9시부터 (모바일은 오전 8시) 4(농협·전북은행·새마을금고·신협)개 금융기관 74개 지점에서 군산사랑상품권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3년 군산사랑상품권은 3,500억원(종이1500억원, 모바일·카드 3,0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추후 정부예산이 지원되면 발행규모를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할인율은 종전과 같이 10%할인에 판매하고, 월 구매한도는 50만원(통합 한도)이다. 이중 종이상품권은 10만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고, 모바일·카드를 통합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구매 가능하다.

단, 1월 한 달간은 설 명절 맞이 특별 이벤트로 종이상품권 구매한도를 30만원으로 일시적 상향한다. /군산=김관곤기자

2022-2023시즌 KCC이시스 프로농구 군산 홈경기 개최

2022~2023 프로농구 KCC이시스 군산 홈경기가 오는 29일부터 오는 2023년 1월 6일까지 총 3경기가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개최된다.

KCC이시스 프로농구단의 제2연고지인 군산에서는 총 3경기가 진행되며 첫 경기는 오는 29일 19시 KCC이시스와 대구 한 국가스공사의 경기로 막을 올린다. 이어 내년 1월 3일 오후 7시 고양 캐롯 1월 6일 오후 7시 서울 SK와 맞붙는다.

특히 올해는 군산에서 개최되는 3경기에서 군산 스포셀 에디션 유니폼을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KCC이시스 프로농구단은 KBL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제2연고지를 지정해 프로농구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지난 2013~2014시즌부터 군산에서 매년 경기를 펼치고 있다. 지난 2021~2022시즌까지 총 29경기 18승 11패의 승률을 보이고 있어 이번 시즌에도 군산에서 승리의 기운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군산시는 프로농구 개최를 위해 체육관 바닥공사를 12월 초 마무리할 예정이다.

군산=김관곤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